



SPECIAL STORY

<조혈모세포> 특집

공감, 나누는 세상

“청소년 생명수호천사로 열심히 활동할게요”

월드 On Air

11월,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한정 속으로

14일간의 사랑여행

한마음
한몸

VOL. 11

autumn

2011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은 사랑을 통하여 자랍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치의 과정을 통하여
사랑은 우리의 분열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십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중에서





www.obos.or.kr | **2011 Autumn Vol.11**

여는 글	02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Special Story	04
조혈모세포 기증자 인터뷰	
희망의 씨앗	07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실천	
고마워요, 사랑해요	10
“절망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공감, 나누는 세상	12
“청소년 생명수호천사로 열심히 활동할게요”	
행복의 씨앗	14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월드 On Air	16
11월,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현장 속으로	18
14일간의 사랑여행	
OBOS NEWS	20



표지이야기

본부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2기가 지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14박 15일 동안 몽골 중문트시 유목민문화센터에서 몽골청년들과 함께 속삭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직업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몽골의 문화와 청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띠앗누리 12기 단원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1년 9월 20일 통권 제 11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홍보팀
출력·인쇄 프리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 으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나중에 죽어 베드로할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이 생겼습니다!!

정리 ● 유영자 | 사진 ● 조동완

... 늦여름 햇살이 제법 따가운 지난 8월 25일, 완공단계에 이르러 마무리 공사 중인 대화마을성당을 찾았습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서근수(비오)신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창시절 별명이 포크레인으로 불렸다는 신부님은 큰 키에 힘도 세어 보이고 거뿔한 얼굴에 건강미가 넘쳐났습니다.

칠레 선교사로 계시던 신부님은 오래 전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했는데, 2009년 8월 한국에 휴가차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날짜를 며칠 앞두고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 조직적 특성 6가지 코드가 전부 일치하는 환우가 있으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Q. 칠레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실 때라서 기증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A. 선교지로 돌아가야 할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칠레에 돌아가서 이메일로 기관과 연락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하루라도 빨리 기증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산티아고 암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래 체류할 수 없어서 사전에 이뤄지는 검사 과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당장 검사 자료를 한국으로 보내는 운송료 지불은 물론 심지어 칠레 병원과 한국 기관 사이에 주고받는 이메일의 번역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체류 일정을 최소화해서 들어온 것이 2010년 2월 하순이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이 이뤄졌을 때, 첫 느낌이 궁금합니다.

A.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환자와 나의 일치될 확률이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타인과 일치 확률은 약 2만 분의 1) 나랑 환자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환자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런 운도 다 있네!'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증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운 좋게 상대를 만난 것이 어찌면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혹시나 이 일 덕분에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 할아버지와 이야기 할 때 '나도 뭐 하나 한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

Q. 한국에서 실제로 기증이 이뤄진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A. 한국에 와서 과립구 촉진주사를 맞고 마지막 날 말초혈 조혈모세포 성분을 헌혈하듯 2~3시간 채취하고 나온 3일이 전부입니다. 기증이 이뤄지고 일주일 쯤 빠근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 통증이나 뼈의 통증은 없어서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증하는 조혈모세포가 누구에게 가는지 궁금했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어린 학생이라는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포크레인이었는데 동기들이 농담으로 성격이 괴팍하고 힘만 좋은 괴물 같은 놈이 또 한명 나타나겠다고 놀리더군요. 아마 그 학생도 성격은 몰라도 건강하긴 할 것 같습니다.

Q. 조혈모세포가 필요한 환우에 비해 기증 희망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기증하신 분으로써 기증 희망자 모집에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헌혈로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우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사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내가 어



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헌혈하듯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3일간 입원하는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증 희망자와 환우가 서로 조직이 잘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Q. 끝으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A. 칠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한 걸음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었던 일로 천국 가면 베드로 할아버지에게 할 말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웃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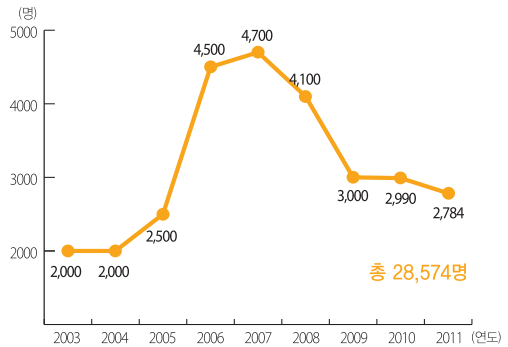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전국 대학 순회하며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이 전국 대학가에서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되어, 2011년 상반기동안 서울대교구 대학생사목부와 한국가톨릭대학생연합회, 한마음혈액원 등과 연계하여 4월 2일~6월 1일까지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과 헌혈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번 캠페인에는 두 배 정도가 늘어난 1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각 대학 가톨릭학생회는 본부에서 받은 포스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당일에 적극적으로 교우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펼친 결과 올해 목표 3,000명의 92.8%인 2,784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2003년~2011년 : 28,265명 모집) 조혈모세포의 경우 연령제한이 만 18~40세까지이고 건강한 사람만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대학생들의 참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 조혈모세포기증담당 유영자(가브리엘라) 간사는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기증자체를 두려워한다”며 “하지만 대학생들은 설명을 들으면 마음을 열어 기증을 희망하고 자발적으로 친

2003년~2011년 기증희망자 현황



구들에게 권해 캠페인이 흥겨운 축제로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경원대 가톨릭학생회장 신윤재(크리스티나·21·수원교구 분당성마태오) 학생은 “봉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혈모세포기증이나 헌혈처럼 가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가 많이 모여 모두가 한마음 한 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의 모집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69명의 환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나눔이 생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주신 기증희망자, 기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신청 대상 : 나이 만 18세~4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남녀
- ▶ 조혈모세포 기증절차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3ml 혈액 채혈 후 유전자 검사 및 정보등록 → 환자발생 → 환자와 기증희망자의 유전자형 일치 → 기증의사 재확인 → 유전자형 재검사 → 기증자 건강검진 → 입원, 조혈모세포 채취
- ▶ 신청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 신청 문의전화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부 (02-727-2268)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실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증활성화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1 희망의씨앗 조혈모세포 생명니눔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지난 5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강릉 원주대 가톨릭학생회와 함께한 캠페인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했던 탁은주 학생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수기가 영예의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백혈병에 걸린 오빠가 골수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수상자의 마음 따뜻한 생명니눔 수기 전문을 게재합니다.

글 ●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탁은주

●●● 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도, 조혈모세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저희 오빠를 통해서입니다. 저희 오빠는 약 18년 전,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살. 저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조부모님 댁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항암치료가 잘 되어 정상생활을 한지 이년이 되었을까, 저희 오빠 몸엔 다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몸으로 겪은 두 번의 암 투항은 체내의 모든 면역체계를 약화시켰고, 그로 인해 대상포진을 포함한 여러 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발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된 몸 상태. 작고 어린 초등학생이 견뎌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중에 골수이식이라는 해결점을 찾게 되었고 유전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희망을 가지고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였지만 그 누구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오빠와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고 저희 오빠는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것이 이토록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와 같이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외에도 만성백혈병과 같이 골수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저도 얼마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간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조혈모세포기증의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 해주어, 많은 학생들이 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골수를 이식해준다는 것이 조금은 무섭고 겁이 나는 일이겠지만, 오히려 세상에 진 빛을 갠 값진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보다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헌혈하듯이 기증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방법이 더 친숙하고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헌혈하듯이 편하게 기증할 수 있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수 천, 수 만 명 중에 나와 일치할 1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본인의 골수

가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증자들이 있을수록 골수이식을 요하는 환자들을 살릴 가능성은 커집니다. 건강한 나의 신체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두가 느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희망의 나락을 잡고 있는 환자에게 저의 조그만 사랑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환자를 상대로 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는 만큼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500여명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며, 이중 40%정도만 조혈모세포 기증(비혈연)을 통해 이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50%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이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많은 환자가 이식을 받고 있고,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브로셔, 소책자와 같은 홍보물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캠페인, 저와 같은 대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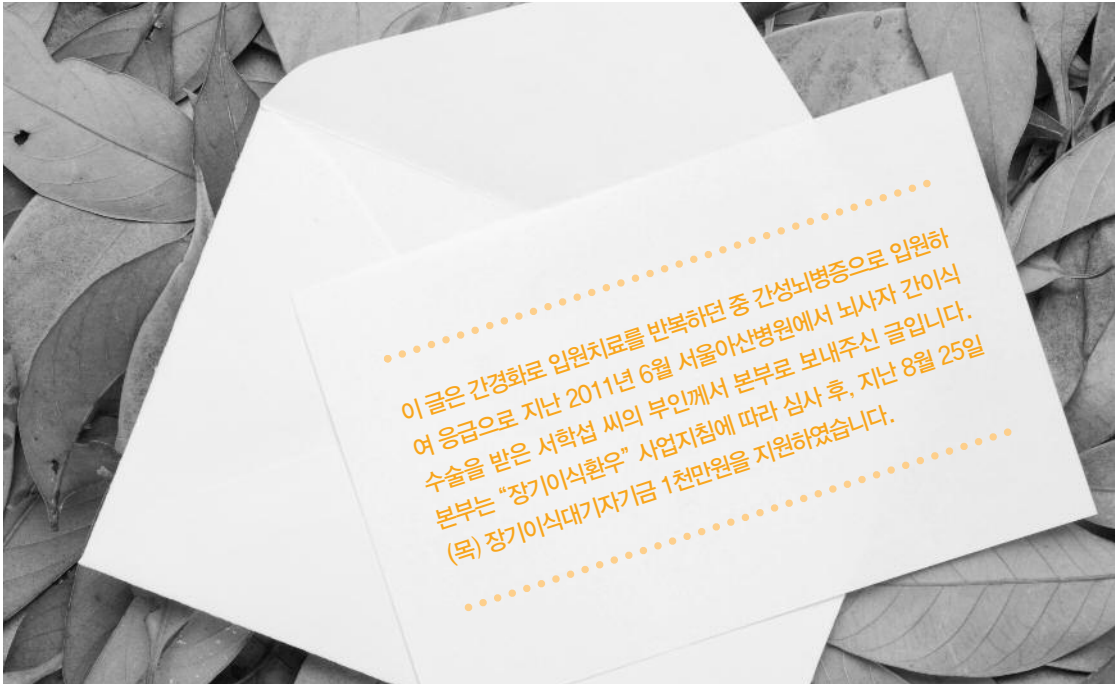
각 학교별 조혈모세포 기증 실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활성화를 주도해나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헌혈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혈모세포'란 무엇인지 조혈모세포의 기증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학교 사람들에게 간호학과 학생회로서 조혈모세포를 알리고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실시하려 합니다. 개개인의 실천이 대대적인 기증활성화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혈모세포는 일치할 확률이 극도로 낮은데다 환자에 비해 기증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조혈모세포 기증은 국내 외에도 국외로도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내밀길 바라며 범국민적인 조혈모세포기증운동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식을 받지 못해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각 처 기관 및 학교 등지에서는 금연과 같이 조혈모세포기증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혈채취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막상 조혈모세포 일치환자가 나타날 시에 이식을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두렵고 겁나는 이유로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조금만 전환한다면 하나의 생명을 넘어 더 큰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골수 일치환자가 나타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기증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환자에게 생각할 여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골수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선택 가능한 쪽을 늘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절실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는 백혈병을 비롯한 골수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 하나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두가 참여할 때 그 나눔의 사랑은 배가 될 것입니다. '골수이식'이라는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붙잡고 서있는 백혈병환자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성의를 내비춰 주세요. 벼랑 끝에 내몰린 환자에게 내민 손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희 오빠와 같이 가치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사회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수기를 쓰면서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외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나눔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얻게되는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 간호인으로서의 자질을 또 하나 갖추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꾸려나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



“절망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어제 아들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리테스트를 했는데 우울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순간 눈물이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실패, 이사, 이직, 그리고 간경화 판정. 1년에 한 두 차례는 늘 병원 신세를 지야 했고 하루하루 환자와 생활하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보니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았고 저는 가정주부로 살다가 2006년 남편의 사업실패로 학교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교사가 아닌 계약직 사서로 한 달 수입이 80여 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3월 남편에게 처음으로 간성환수가 와서 아산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간이식을 받으라고 권유 받은 건 작년이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복수와 황달, 식도정맥류 정도로 병원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성환수는 참 절망적인 증상입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폭력, 폭언 그리고 무의식. 환수가 깨는 동안은 밤새 관장을 해야 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를 잠시라도 혼자 둘 수가 없어 밤에는 제가 환자 곁을 지키고 낮에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병원에 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며 간이식을 권했지만, 남편의 혈액형이 O형이라 간기증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4남1녀 중 넷째입니다. 남동생이 먼저 기증자 검사를 했는데 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기증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형제들 중에는 모두 나이가 많아서 간 기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우리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종혈액 간이식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혈액형끼리도 위험한 수술인데 혈액형이 다른 경우 혈장 교환술도 해야 하고, 수술 후 면역억제제 양도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큰 형님택의 조카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25살인 조카는 A형이지만 흔

쾌히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해서 마음고생을 덜어 주었습니다. 큰조카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다시 간성훈수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응급실과 간병동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큰조카의 간상태가 좋아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

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수술 전 검사에 들어갔고 이상이 없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간성훈수가 왔습니다. 의료진이 스케줄 잡으러 왔다가 이 상태에서는 이종혈액간 간이식은 불가능하다며, 이 상태에서는 너무 위험하고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행운을 빌어보자면서 '응급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보라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비를 먼저 입금해야 수술이 가능하다면서 마침 뇌사자가 나와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행운이 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지금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고, 간이식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실패로 살던 집도 다 날리고 저희 언니가 얻어준 월세에 살고 있

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라도 우리 것이면 빠져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살 곳이 없는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형제가 의논해서 시누이가 살던 집의 전세를 빼서 수술비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준비된 돈을 입금 시키고 그날 8시간 반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고 잘 끝났습니다. 환자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큰 수술도 잘 이겨내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병상에 누워서 병원비 걱정에 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술비는 빌렸지만 앞으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생긴 병원비도 이미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2~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제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되지 않습니

다. 아이들이 이제 중3, 중2입니다. 한 창 많이 먹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일도 해야 하고 환자 간호도 해야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러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일렸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꼭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났지만 그 길이 아직 험난합니다. 남편 잘 회복해서 사회생활 복귀하면 우리가 받은 것들 다 돌려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이식 대기자 돕기 후원

- 신한은행 327-05-023289
- 예금주 (재)천주교한미음함몸운동본부



탤런트 서현진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청소년 생명수호천사로 열심히 활동할게요”

탤런트 서현진(가브리엘라, 26, 서울 삼성동 성당)씨가 지난 7월 11일 한마음 한몸운동본부(이하 본부) ‘생명수호천사’ 홍보대사로 위촉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에게서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 정 추기경은 명동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브리엘은 예수님 탄생을 성모님께 예고한,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라며 “한마음 홍보대사로서 세례명처럼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추기경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려면 자기 자신부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어 “보람 있는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삶”이라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정진석 추기경이 11일 탤런트 서현진씨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2. 탤런트 서현진(가브리엘라)씨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 후 정진석 추기경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보미 수녀, 탤런트 서현진씨, 정 추기경, 김용태 신부, 민경일 신부(왼쪽부터).



서현진씨는 “부족한 제가 생명수호천사 홍보대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한 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부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고 지금까지 1만여 건의 전화·사이버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생명학교’를 개최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생명수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위험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 발견하여 따뜻한 관심은 물론 즉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적극적인 예방활동입니다.

자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생명수호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살예방활동에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1년 7월 현재, 이 교육을 통해 배출된 생명수호천사는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 씨는 본부의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3기)에 참여하여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세례명에 걸맞은 나눔 천사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MBC 월화드라마 ‘작패’의 여주인공 달이 역을 맡아 열연하는 등 영화와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촉식에는 본부장 김용태 신부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 김보미 수녀 등이 참석했습니다. ⊕

제1회 명동생명 문화축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명동생명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축제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1. 10. 8 (토) 10:00~16:00

① 10:00~12:30 생명사랑포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가톨릭회관 205-2호)

② 12:30~16:00 생명문화축제 하나! 문화공연 마당 (을지로입구역)
둘! 생명사랑체험 마당 (명동 일대)

▶문의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02-727-2296~7)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 줌의 쌀 예수님 뭍으로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소리아 메이의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저에게는 귀여운 외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소리아 메이(Soriya Mey, 가명)**’, **12살입니다**. 소리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
는군요. 이 아이의 아빠는 ‘소리아’의 엄마를 사창가에 500달러에 팔아버
린 것으로도 모자라 ‘소리아’까지 100달러에 팔려고 했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 모진 사위로부터 손녀를 데려와 직접 키
우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우린 너무 가난하고 늙었지요**.
거기다 피부병까지 심하게 앓고 있는 외손녀가 훗시 자기
엄마처럼 에이즈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외손녀를 메리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놀에서 우리 손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와 떨어져 메리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San Som Kosal 초
등학교 5학년생이 되었답

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안일을 돕고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는 ‘소리아 메이’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매우 행복해하
고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러분
들의 나눔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캄보디아 메리놀회는** 1996년부터 캄보디아 HIV/AIDS 감염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지역정부, 병
원, NGOs, 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가정에 기반한 보호 및 치료와 예방교육활동을 펼쳐오고 있습
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적절한 영양섭취, 안전한 주거확보, 감염환자들의 자존감
확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스스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부는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헌미헌금운동은 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 몫으로' 봉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고자 시행하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쌀 한 줌씩을 모아 돕자는 뜻에서 매년 5월 성모성월과 9월 순교자성월을 '헌미헌금 봉헌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몸소 '헌미헌금 스티커'에 서명하시어, 집무실 항아리에 붙여놓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나눔 운동인 '헌미헌금운동'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석이 되고 있으며, '희망·행복의 씨앗'이 되어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및 생명운동 등 모든 나눔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9월 헌미헌금 봉헌의 달을 맞아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냅니다.

한 줌의 쌀을 나누는 정성으로 지구촌 모든 청소년들이 꿈과 행복을 가꿀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아이들의 밥이 돼 주기 위해 헌미헌금운동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1 교육지원 사업 현황

본부는 가난과 저개발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건립, 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함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티 대지진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서 10개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지면 1,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역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킨달 지역에서 빈곤한 에이즈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24개 기숙사 1,500여명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헌신적인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헌미헌금 봉헌의 달' 후원계좌

●우리카운 454-005324-13-00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ARS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11월,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9 Nov.-1 Dec. 2011, Busan, Korea

●●●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발효과성을 위한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국제회의에는 전세계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 160여개 나라를 대표하는 장관급 고위인사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지도자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회의로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최빈국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차별을 종식시켜 진정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제개발 정책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개발선언문'과 지구촌 빈곤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로 이루어진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만장일치로 채택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아래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기관, 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다양한 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하여 원조를 둘러싼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조관련 모든 국가 및 단체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가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HLF-1). 그리고 2005년 파리에서 제2차 고위급회의(HLF-2)를 개최하여 원조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에는 파리선언 이행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가나의 아크라에서 3차 고위급회의(HLF-3)가 열렸고, 원조효과 개선을 위한 협의사항과 파리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이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아크라 회의에서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800명 이상이 참여한 시민사회포럼이 동시에 열렸으며,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개발행위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 따라 세계시민사회(CSO)의 역할과 위치도 다양하게 변모해왔습니다. 세계시민사회는 기존의 원조체계와 개발협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발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연대체 중심으로 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Better Aid, Open Forum 등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계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국내

적으로는 2010년 9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이 출범하였고, 현재 KoFID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대응하고, 세계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KoFID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국내에 알리기 위한 대외홍보,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세계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의 입장에 반영하고자 정책개입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과 운영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효과성 즉,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개발 재원의 활용 등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가 투명성과 역량에 대한 자체 평가와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 권리와 자율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희망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개발도상국과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더 이상 원조만이 아닌 수원국의 인권, 성평등, 지속가능성 원칙이 준수되어 빈곤층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개발과정에서의 참여가 촉진되어 개발원조효과 및 가치 증진에 대한 이해와 원조를 통한 빈곤감소 및 새천년개발목표 달성(MDGs)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내길 기원합니다. ⊕

14일간의 사랑여행

몽골을 다녀온 지 벌써 2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까맣게 탔던 얼굴,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얻은 멍자국 등
 몽골에서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때때로 함께했던 친구들의 목소리, 웃음소리가 생각나고
 아름다운 풍경들과 바람 냄새가 생각납니다.



글 ● 떠앗누리 12기 이해림

●●●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시기.
 때마침 “국제청년자원활동단 떠앗누리 12기”라는 이름
 으로 몽골에 가게 되었을 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
 니다. 또한 ‘내가 과연 지구시민으로서의 청년으로 이 프
 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
 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던 내게 가장 어
 려웠던 건 몽골어!! 사전교육 시, 몽골어 공부시간에는
 너무나 어려운 발음 때문에 좌절하기를 몇 번... 좌절의

시간을 겪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몽골로 떠
 났습니다.

처음 접한 몽골은 밤하늘이 너무나도 예쁜 나라였습니
 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우리를 반겨주는 몽골 떠앗
 누리 역시 그런 밤하늘을 닮아 예쁘고 순수한 친구들이
 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과 2주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문득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교류하고 있는가?'를. 처음 띠앗누리를 지원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보다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잘 배우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몽골 띠앗누리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한국 띠앗누리 친구들을 통해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14일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일하고, 먹고, 자고!! 가족 같은 모습으로 지내면서, 가끔은 제가 너무 몽골친구들을 위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어를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데, 출국 전 대충대충 이란 생각으로 몽골어를 공부했던 나, 그리고 서로 문화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 조금씩 안 맞는 점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모습...

보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날 무렵, 휴식시간에 몇몇 단원들과 나눈 이야기는 남들이 듣는다면 너무나 웃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신기하게 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지?" 이말 한마디에 웃음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는 작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문득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을라치면 우리의 왕언니가 "요즘에는 연락수단 많잖아~ 페이스북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으면 되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며 다독여 주었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듯 금세 웃으면서 몽골친구들과 떠들떠들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넓디넓은 초원에 가족들이 뛰놀고, 낮에는 푸른 하늘에 각각의 구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들을 수놓아 둔 그곳... 그곳이 바로 몽골이었고, 몽골 띠앗누리 친구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폐제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을을 영원히 기억하며, 14일간의 사랑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어 고맙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친구들... 고맙습니다. ⊕



OBOS NEWS

국제협력

2011 원조·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 참가



본부는 지난 9월 1일(목)~2일(금) 원조·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과 사전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아시아재단(The Aisa Foundation)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KoFID, 한국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국제개발협력학회원 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개발 NGO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타블원칙과 국제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션인 '원조·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내 플랫폼의 역할'에서는 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의 사회로 중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미국, 한국 등의 발제자들이 각 국가별 시민단체의 경험과 사례발표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발전적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66기 KOICA 해외봉사단' 강의



지난 8월12일(금), 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제66기 KOICA 해외봉사단 국내훈련" 과정에 초청강사로 나서 "자원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KOICA 해외봉사단 훈련센터'에서 열린 이날 강의는 '66기 KOICA 해외봉사단원' 76명을 대상으로 자원활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봉사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DA정책 워크숍 참석



본부는 지난 6월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HLF-4 젠더 의제화 이니셔티브와 CSO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ODA정책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올 11월말 개최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젠더 이슈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HLF-4 젠더 의제화 이니셔티브'에 내용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며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토론자로 참석한 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는 "새마을운동 전개과정에서 부녀지도자 등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과연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고 배려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운동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한 여성들의 참여가 뒤늦게 결과론적으로 조명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보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부 '제3회 국제개발 NGO 정기포럼' 참가



본부는 지난 6월20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주최로 "현장에서 바라본 개발효과성"이란 주제로 열린 「제3회 국제개발 NGO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29일~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준비하며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특별히 한국 개발NGO의 현장사례를 살피며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본부 본부부장 민경일 신부가 토론자로 나서, 국제 원조기구나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개발분야의 독립적인 주체이기에 개발NGO들의 사업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함을 전하고 이제는 지난해 9월 Open Forum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명운동

본부장 김용태신부, KBS 한민족방송 '종교와 인생' 출연

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지난 8월1일(월)부터 7일(일)까지 일주일간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프로그램인 '종교와 인생'에 출연했습니다.

김용태신부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종교 활동과 개인의 신앙생활을 소개하는 '종교와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북방 동포 및 재외 동포들에게 종교의 중요성과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본부에서 함께 펼치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자살예방, 국제개발협력 등 본부의 생명나눔운동과 천주교회의 생명운동에 대한 노력 및 나눔운동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매일 20여 분에 걸쳐 일주일간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방송은 본부 홈페이지 (<http://www.obos.or.kr>) 공지사항에서 다시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11년 생명사랑대상 '네트워크 부문' 수상

본부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9/5(월), 한국 자살예방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1년 생명사랑대상' 시상식에서 생명사랑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네트워크 부문 올해의 생명



사랑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22일 개소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본부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 자원활동가 분들과 감사드리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장기 및 조직 기증 홍보 워크숍' 참가



본부는 지난 7월8일(금), 서울 혜화동 서울대의대 동창회관에서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제2회 장기 및 조직 기증 홍보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장기 및 조직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장기 및 조직기증 바로 알기"란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와 관련 민간단체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다른 기부, 상품권기부



서울 정릉4동 성당(주임 이범주 신부)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인 김혜정 안젤라 선생님께서 백화점 상품권을 우편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5천원권 16장과 1만원권 8장 그리고 3만원권 1장을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 지길 바란다는 마음과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김혜정 안젤라 선생님의 직장에서는 '활기찬 직장, 즐거운 사내문화'를 위해 매주 우수사원들에게 작은 상품권을 선물했고, 그렇게 한 장 한 장 모은 것이 25장이 되었습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모았고,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기부할까도 했지만 딱 맞는 곳에 맞춤으로 쓰여 졌으면 해서 상품권 그대로 보내게 되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른들이 선물해 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아이들과 청소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원교구 용인성당 첫영성체 교리반, '사랑의 저금통' 시작



지난 7/2(토), 수원교구 용인성당(주임 이호권 신부) 첫영성체 교리반 학생과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랑의 저금통'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이 나눔은 교리반 학생 16명 전원(초등 3~6학년)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용인성당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저금통에는 동전과 함께 동전에 담은 예쁜 마음들이 함께 채워져 갈 것입니다.

생애 첫 기부

생일을 맞은 아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랑실천에 감사 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이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재윤 (2010.05.30생 父 노규형/ 母 김혜진),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영선 라파엘 (2010.03.09생 父 이성목/ 母 김정희),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한서준 스테파노 (2010.06.24생 父 한정환/ 母 아혜진),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유준 (2010.06.15생 祖母 김영숙 마리아나),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효주 요안나 (2009.06.02생 父 김승재/ 母 오수연), 5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정유담 (2011.02.21생 父 정진호/ 母 김고은), 1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하린 플로라 (2009.06.02생 父 이동현/ 母 전인옥),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승민 발렌티노 (2010.05.31생 父 이진수/ 母 박인정),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송희서 (2010.05.06생 父 송권봉/ 母 김미리),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준휘 (2010.06.19생 父 이석환/ 母 박희옥),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준수 (2011.02.25생 父 김희집/ 母 홍윤희),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채윤 (2010.06.11생 父 임성필/ 母 안유선),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배승민 반첸시오 (2010.06.16생 父 배준범/ 母 김은정),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성빈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10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박지혜 (2011.03.18생 父 박승배/ 母 공혜경),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은진 마리아 (2010.06.15생 父 홍원표/ 母 박선영),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父 조낙기/ 母 조선미),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여서현 (2011.04.22생 父 여현빈/ 母 송승희),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은지 스텔라 (2010.06.14생 父 김영돈/ 母 이은아),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수연 (2011.03.31생 父 김무승/ 母 송혜민),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시우 (2010.06.26생 父 김인수/ 母 박수연), 1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도현 (2010.03.24생 父 김범석/ 母 김주연),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유진 알레드 (2010.01.12생 父 정희택/ 母 조엘리사), 2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천유정 (2009.10.19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천승민 (2011.02.21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재민 세레자요한 (2010.04.03생 父 황주현/ 母 전주진), 1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윤건우 시도요한 (2009.12.01생 父 윤현배/ 母 이미지), 10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전주형 세레자요한 (2010.07.07생 父 전규진/ 母 이소영),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윤지우 안나 (2010.07.23생 父 윤종국/ 母 최윤주), 5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손서우 크리스티나 (2006.07.22생 父 손순환/ 母 이시용),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도연 리아 (2007.07.14생 父 김OO/ 母 박OO),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동현 요한 (2001.09.24생 父 김진국/ 母 이진아), 2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김민규 비오 (2010.09.23생 父 김지환/ 母 이명산),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동하 다니엘 (2008.08.04생 父 김중영/ 母 조익희),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영선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영준 (2010.07.24생 父 김병욱/ 母 이수희), 50만원 (아이티 학교 건축 돕기)
- 김민준 비오 (2010.08.21생 父 김기욱/ 母 김수진),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서완 마태오 (2010.07.01생 父 이혁승/ 母 신혜선), 10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이주영 라파엘 (2010.07.29생 父 이영상/ 母 이윤정),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도현 아도보 (2010.07.25생 父 김재철/ 母 김은영),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지현 (2010.08.16생 祖母 박인준 스테파노),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민아 (2010.09.01생 父 최신용/ 母 김은희),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준서 베드로 (2010.05.31생 父 최승원/ 母 김희정),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윤서 다윗 (2010.05.31생 父 최승원/ 母 김희정),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서준우 (2011.05.03생 父 서동희/ 母 김효숙), 20만원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최을 (2010.09.11생 父 최영기/ 母 이윤경), 36만5천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채원 (2011.05.06생 祖母 조영실 뿌리나),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하윤 (2010.08.15생 父 최준혁/ 母 김경인), 2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보민 가브리엘라 (2010.03.14생 父 김성원/ 母 안혜준),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지아 그라시아 (2010.08.05생 父 홍윤기/ 母 지아임),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호연 (2007.08.20생 父 조남현/ 母 김지영),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현우 (2008.03.26생 父 이창제/ 母 정영아),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예준 (2010.09.16생 父 조승민/ 母 안영경),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생애 첫 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 생애 첫 기부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이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3.9 ~ 2012.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